

감염인으로 살아온 지난 1년을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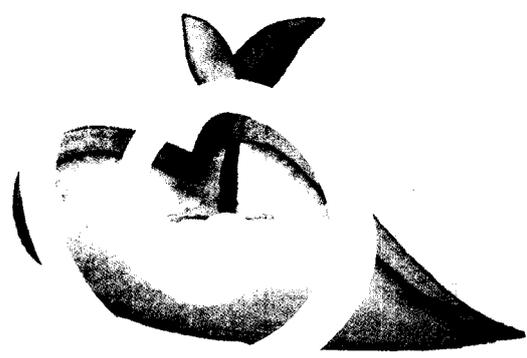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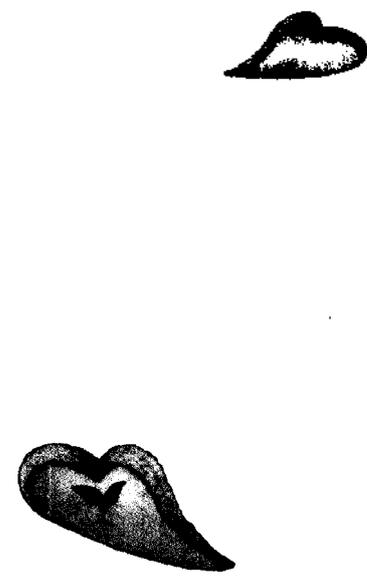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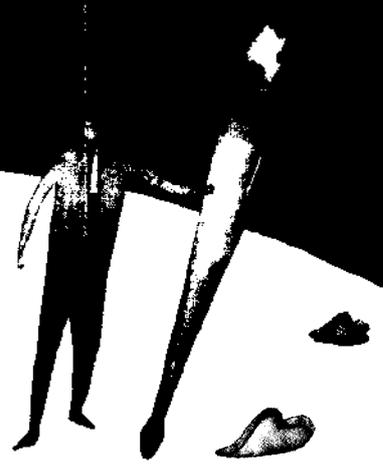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에이즈는 불치의 병,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취급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에이즈 감염인으로 진단받는 순간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에이즈는 나이,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에이즈 감염인 겪는 '평범한' 일상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무게만큼 딱딱하게 엮여져 가고 있다. 에이즈 감염인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라며,

아들이 지는 힘겨운 삶의 무게는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남들과 다름없이 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의 1주일간의 혼수상태, 그리고 4개월간의 투병생활, 이곳 쉼터에서의 수개월간의 요양. 진짜 정신없는 1년을 보낸 거 같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감염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 이 글을 쓴다.

1주일간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의 차가운 가족들의 눈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집사람은 비몽사몽간에 도 옆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리에 없고 아들과 누이만 자리하고 있다. 며칠 후 주치의에게 내 병명이 무엇인지 묻자 눈치를 보며 내 병명이 에이즈라 알려 주었다. 자리에 있던 아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운다. 이 말도 안 되는 설명은 듣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할 따름이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겠지만 그 누가 이 말을 믿으려 하겠는가? 세상에서 제일 추잡하고 더러운 난잡한 병에 내가 걸렸나니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을 할 일이 아닌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동안 사업실패 후 식구들과 비록 떨어져 있었으나 나를 믿고 기다려 준 식구들과, 친척, 친구들을 어찌 보라고 이런 일이 있던 말인가! 주치의의 다음 설명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던 중 담당교수와 지역을 담당하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도움으로 내 병에 대한 정보와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며는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으나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제외한 집사람과 딸들과의 연락두절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누이는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말을 하지만...

4개월간의 투병생활 동안 누이와 담당교수님, 병동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망가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고 조금씩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

올 5월 중순경 지역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보건소담당자의 도움으로 이곳 쉼터로 오게 되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듯이 따뜻한 마음과 진심어린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곳 협회의 국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과 어머니같은 원장수녀님 그리고 박 선생 등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1년 전의 활기찬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여러 취미활동 등으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 감염인들의 메마르고 공허한 마음들을 정리 할 수 있도록 자기일 같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마음에 머리 숙여 지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제 얼마지 않아, 우연히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신청한 작은 평수이지만 이한 몸 의지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이 또한 아직 해당이 안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생각했던 것 보다 일찍 입주를 하게 되나보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과 딸들을 당당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에 벌써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제 힘들고 어두웠던 지난 시절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애를 써주신 여러 지인들의 진심어린 대가없는 봉사에 보답하고자, 주어진 여건에서 불평과 편견 없이 희망과 즐거움으로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비감염인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애써주신 이곳 에이즈예방협회의 여러분들과 로이스원장수녀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여러 취미활동 등으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 감염인들의 메마르고 공허한 마음들을 정리 할 수 있도록 자기일 같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마음에 머리 숙여 지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제 힘들고 어두웠던 지난 시절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애를 써주신 여러 지인들의 진심어린 대가없는 봉사에 보답하고자, 주어진 여건에서 불평과 편견 없이 희망과 즐거움으로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비감염인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